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1 상반기호

---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과 커뮤니티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1 상반기호

##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과 커뮤니티

### CONTENTS

#### <아젠다 기획>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종언과 동고(Mitleid)의 공동체(류도향)	04
대대성(對待性)과 감통(感通)의 공동체(장복동)	09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와 보헤미안 랩소디(최대희)	16

#### <연구동향>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24
가족의 미래를 묻기 전 검토해야 할 것들 I : <가족실천 및 가족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추주희)	25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전화 062-530-3234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아젠다 기획

-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종언과 동고(Mitleid)의 공동체(류도향)
- 대대성(對待性)과 감통(感通)의 공동체(장복동)
-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와 보헤미안 랩소디(최대회)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종언과 동고(Mitleid)의 공동체<sup>1)</sup>

- 류도향(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 근대 가족 이후 무엇이 도래할까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자발적 비혼모, 낙태죄 폐지, 체외 수정 출산 등은 우리에게 통상적인 가족 질서를 전도시키는 새로운 상상을 자극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을 유지, 보존, 계승해야 하는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혈연으로 이어진 핵가족은 가족담론에서 그 중심적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향후 가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까? 가족의 변화와 연동된 사회패러다임은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직면해서 사회비판이론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1903-1969)의 성찰은 우리에게 시의성 있는 참조점을 제공해준다. 그는 20세기 후기자본주의 단계에서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가족의 종언을 진단했고 근대 가족 패러다임의 한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부자유 및 사회의 병리화 현상과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필자는 이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근대 가족을 내재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엔클라베(Enklave, 자국 내 타국의 영토)’로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조건을 동고(Mitleid, 동고(同苦))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후기자본주의 단계에서 가족의 종언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20세기 경제대공황 이후 등장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자유 시장 및 경쟁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일차적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사회의 심층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상품교환의 원리가 교육과 문화·예술 영역까지 제도화하고 개인들의 의식과 가장 내적인 인간관계에 침투한 부정적 현실을 고발한다. 그는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을 경쟁과 합리적 계산의 메커니즘에 종속시키는 “보편적 현혹연관”(der universale Schuldzusammenhang)이 되었고, 이 안에서는 “삶이 살아 있지 않다”<sup>2)</sup>고 탄식한다. 삶은 “자율성이나 고유한 실체도 없이 물질적 생산과정의 부속물로 되면서 [...] 단순히 소비의 영역이 되었다”<sup>3)</sup>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냉혹한 사회의 원칙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해방구로 여겨진 가족마저

1) 이 논문은 가족커뮤니티사업단 2020 국제학술대회 “신자유주의 시대 가족과 커뮤니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며, 『철학논총』 103집(2021. 1. 31)에 게재예정임을 밝힙니다.

2) Th. W. Adorno, *Minima Moralia*, in: *Gesammelte Schriften Bd. 4*, Frankfurt/M 1979, 20쪽. 이하 MM으로 약함.

3) MM, 21쪽.

이해관계 및 교환과 깊숙이 매개된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이를 사회의 부정성이 총체화된 객관적 징후로 인식했다.<sup>4)</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의 주저인 『미니마 모랄리아 Minima Moralia』에서는 “가족의 종언”<sup>5)</sup>이 언급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종언은 가족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면서도 그에 저항하는 개인의 형성 토대가 된 가족이 체계의 힘에 종속되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적대적인 사회구조에 저항해서 이윤추구와 경쟁을 부정하는 인간적인 연대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불가능해졌음을 아도르노는 이미 20세기에 통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가족은 “인간 간의 직접적 관계라는 신기루” 같은 공동체가 되었고,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가장 밀착된 접촉에서 개인은 지양될 수 없는 거리”를 느끼며 소외된다.<sup>6)</sup> 그는 한 때 어머니의 사랑, 여성의 반권위적 인간관계로 그 생명을 부지했던 가족의 유토피아가 허위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고 본다.<sup>7)</sup>

### 합류적 사랑과 차가운 친밀성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는 20세기 후반 서양의 가족구조 변동을 ‘낭만적 사랑’에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에로의 변화로 특징짓는다. 여기서 합류적 사랑은 오로지 두 사람의 감정에 기반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순수한 관계’를 의미한다.<sup>8)</sup> 그는 무엇보다 “자율성의 원칙”(=자아의 성찰적 기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순수한 관계의 실질적 구성요소로 꼽는다. 자율적 개인은 타인을 똑같은 자율적 개인으로 대우하며 개인적인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sup>9)</sup>

기든스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는 합류적 사랑의 관계맺음 속에서 자율적으로 “양성 간의 경제적 차이와 심층적인 심리 차이”<sup>10)</sup>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류적 사랑이 낭만적 관계를 공정한 계약적 교환으로 합리화해버림으로써 근대 가족 패러다임을 추상적으로 초월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과연 기든스의 사랑 모델이 오늘날 상품화와 물화가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해 들어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친밀 영역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도르노의 사유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인간들 내면의 근원적 차가움

아도르노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근원적인 차가움(Kälte)을 내면화하고

4) MM, 33쪽.

5) MM, 23쪽.

6) MM, 103쪽.

7) MM, 23쪽.

8)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황정미, 배은경 옮김, 1996, 278쪽.

9)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279쪽. 여기서 관리는 “서로 다른 가능한 행위 과정을 숙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10)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278쪽.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차가움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기질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형식과 경쟁형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부르주아적 주체성의 '개별화 원칙'이자 계산적 합리성에 기초한 냉정한 태도방식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개인은 "폐쇄된 체계 속의 공포증"을 앓고 있으며, 그러한 질병은 사람들을 차갑게 만든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밀한 충동과 욕망으로부터의 소외 또한 야기함으로써 인간을 항구적인 불안 상태에 빠뜨린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로부터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 때문에 개인은 자기유지와 성공을 위해 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자연, 나아가 다른 인간 존재들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형성하는 모든 매개관계를 해체해버림으로써 빈곤해지고 조잡해지면서 더욱 사회의 단순한 객체로 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따뜻함의 이데올로기로서 소환되는 가족

구조변동한 친밀 영역에서 가족은 개인의 근원적 불안을 궁극적 조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상상의 영역(ex.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심 없는 증여와 선물')으로 이행된다. 가족은 유토피아적 상상을 고취하는 강력한 감정적 상징, 은유, 서사로서 개인적·집합적 행위를 방향짓는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 이후 경제체제는 이런 유토피아적 계기를 상품화하여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공명할 수 있게 조작하고 통제한다. 영화와 광고 등 문화산업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테마를 최고의 가치로 찬미하고 가족과 행복을 등치시키고 있다. 동성애, 동거, 이혼, 줄혼, 미혼모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졌다.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새로운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이는 가족을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일상 활동의 차가운 순간"<sup>11)</sup>의 보상물로 그리는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따뜻한 공동체의 가능조건으로서 동고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의 사후경직(Totenstarre, 死後硬直)은 그 경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친밀성의 세포(die Zelle der Intimität)에까지 이식된다.<sup>12)</sup> 차가움의 세포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도르노는 일정하게 여타의 사회적 관계와 차별화되며 배타성을 갖는 친밀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지 않는다. 그는 "부르주아적 차가움"(자연지배적 이성의 반사)의 반대상으로서 '따뜻함'(Wärme), 비인간적이 된 보편자 속에서 "인간적인 세포"(humane Zelle, MM 33), 즉 잘못된 사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의 잠재력을 "동고" 개념을 통해 암시한다.

11)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 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7, 33쪽.

12) MM, 155쪽.

삶의 고통을 함께 겪는 동고는 초월적 도덕법칙이나 순수한 감정에 의해 추동되는 동정과 다르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깊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칫 고독 속에 있는 자기 향유, 자학자의 우울 속에 있는 마조히스트적인 심리의 발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아도르노의 동고는 감정과 욕망, 충동까지 개인의 내적 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사회 구조의 비판적 인식을 동반하며, 각 개인의 신체의 차원에까지 뿌리 깊이 체화된 경쟁과 효율성의 태도방식을 부정하는 실천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기들과 매개되지 않은 동고는 공허한 관념일 뿐이며, 개개인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조건을 방조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도될 수 있다.

아도르노는 동고의 낭만성과 관념성을 탈피하기 위해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과 세계의 고통으로 이전되는 연결점을 신체에서 찾는다. 신체는 정신과 충동, 문화와 자연, 남성과 여성, 나와 너, 사회와 개인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넘어 타자에게로 향하는 충동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를 향한 신체의 민감한 반응성은 “경제라는 보편적으로 편제한 매개의 압력에 의해서도 직접성을 위축되지 않게 하는 능력”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누군가를 그 자체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주체 내부의 순진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을 지키는 힘(Kraft, MM, 193)의 지속을 통해 감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지속은 잘못된 사회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이 사회에서 어떤 더 나은 것으로 표상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평화로운 엔클라브가 아니라 단지 의식적인 저항 속에서만(nur im bewußten Widerstand) 그릴 수 있다.<sup>13)</sup>

여기서 의식적인 저항이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시간의 핵(Zeitkern)을 관계 외부의 목적이나 기능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관계 내부의 모순과 과정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만의 바람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허구적 관계가 아닌, 타인이라는 힘겨운 존재를 겪으면서 생겨나는 수많은 자기규정들의 집합체로서 실재적인 관계-만들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실행은 타자에 대한 “생명에 찬 충동들” 뿐만 아니라, 감각과 진실된 감정의 소통, 여러 사회적 전제들과 행위의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판단력과 도덕적 숙고를 요구한다.

13) MM, 193쪽.

### 가족적인 것의 새로운 짜임관계

가족은 공동체적 인간이 맺는 관계의 한 양태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분화해갈 것이다.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적 가족 이외에도 ‘가족적인

것의 다양한 짜임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새로운 짜임관계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다.

동고는 주체들 간의 그리고 객체들 간의 지배와 폭력을 부정하면서 “사람들 자신 및 모든 생명체에게 투명한 연대”<sup>14)</sup>를 실천하는 태도방식이다. 우리가 어떤 동고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혈연과 제도로 이어진 운명의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 가족의 운명성이 배태한 허위와 모순을 직시하면서 서로를 사회의 공식적 제도로 표준화할 수 없는 비동일자로 서로를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가 합일될 수 없는 차이의 존재임을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린다. 가족이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어야 하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이룰 때 경제력이나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본다. 하지만 개인-사회-가족의 변증법적 관계망 속에서 가족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건은 차이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자 사회의 통상적인 질서의 위계를 전도시키면서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힘일 것이다.

14) Th.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홍승용 옮김, 한길사, 2003, 287쪽.

# 대대성(對待性)과 감통(感通)의 공동체

장복동(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1. 관계의 미학·관계의 정치와 대대성과 감통

유교[유학]을 떠올리면 으레 가족주의와 혈연에 정초한 정적 유대가 중심체제로 부각된다. 유교가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비판적 관점에서 현재화할 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가족주의(familialism)·연고주의(nepotism)의 그늘에서 타자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전제하는 ‘관계의 미학’, ‘관계의 정치’를 떠받치는 대대성(對待性)과 감통(感通)의 논리를 거꾸로 추론할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증폭된 관계의 해체, 연대의 붕괴, 공동체의 균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혈연이 지연·학연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뿌리로 작용하는 유교 가족주의를 극복하여 다원화된 개인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대성과 감통의 공동체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왜 대대성인가?’라는 근본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관계성 혹은 상관성의 의미를 더욱 섬세하게 맥락화 할 수 있는 대대성의 의미와 근거는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현대사회가 집산주의(集産主義, collectivism) 공동체와 빗장 공동체를 벗어나 공공성과 조화에 바탕을 둔 트임의 공동체로 재구성되는 데 대대적 사유와 감통의 공동체가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 2. 왜, 대대성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공동체와 관련된 사유방식에 근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왜 대대성, 대대적 사유인가? 이미 여러 차원에서 이론화 과정을 거친 상관적 사유가 유교공동체를 이해·해체·재구성하는 토대논리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 ‘상관적 사유’는 상

관적 차이로 대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상관적 차이가 사유나 언어로 구체화 될 수 없는 본체 혹은 본성을 원형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관적 사유에서는 대대성이 매개적 요소로 존재할 뿐이다. 이와 달리 주희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대대적 관계를 유학의 존재론적, 가치론적 사유의 근본 틀로 제시하면서 존재와 가치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축(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란 대대적待對的 관계로서 서로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천리天理여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움직임과 짝하지 않는다면 고요함이라고 부를 수 없고, 고요함과 짝하지 않는다면 역시 움직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대대성 혹은 대대적 사유는 차이나 관계의 구조·체계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 삼투적, 포섭적 구조와 구성에 중점을 둔다. 이런 맥락에서 대대적 사유에서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폭력적 태도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힘의 우열이나 권위의 서열, 위계가 관계를 파멸로 몰아넣는 존재론적 파국은 도래하지 않는다. 타자의 개체성·개별성은 온전히 인정하면서 타자들 사이의 공존과 공감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대적 사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3. 감통의 공동체에서 대대의 윤리

유학은 예를 통한 덕의 실현을 지향하는 삶의 철학이다. 따라서 예에 바탕을 둔 규율과 질서, 내면의 도덕적 본성의 외재적 행위로서의 이행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감성적 교류와 합리적 소통, 즉 감통의 의미가 뒷받침 된다면 선험적 도덕본성—감통(감성적 교류와 합리적 소통)—실천(행위)로 이어지는 유교 실천윤리의 유연한 맥락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감통의 의미는 역(易)의 존재론적 성격과 실천적 특성을 해명한 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역은 생각도 없고 작위 하는 것도 없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일에 통한다. 천하의 지극히 신령스러운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는 유학의 천인 상관적(天人相關的) 사유가 전제되어 있다. 하늘은 ‘미발(未發)’의 상태에서 생각도 의식적[의도적]인 행위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인간의 행위에 감응하여 마침내 소통하는 ‘이발(已發)’의 상태로 전환한다. 이는 하늘의 의지와 행위가 발현되어 인간과 감통한다는 관점에서 인간 삶의 실존과 관계된다.

정약용이 구상한 좋은 사회, 즉 ‘잘 사귀[善際]의 공동체 — 인간 사이의 공감과 소통이 확연하게 진전되는 공동체 — 는 사회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 타자의 필연적 있음을 전제로 자아의 의미가 대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정약용은 인간

이 '사이[間]'의 존재, 관계망으로 접속된 존재라는 점에서 상호 통섭적 공감과 서로 트임을 전제한 소통으로 이루어진 '잘 사귀'의 공동체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더듬어 보면,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뿐이다. 가까운 이는 부자와 형제요, 먼 이는 친구와 마을 사람이며, 낮은 이는 신하와 종 어린아이요, 높은 이는 군사君師와 나이든 어른이다. 무릇 나와 더불어 둥근 머리에 모난 발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는 모두 나아 더불어 서로 기다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귀고 서로 접촉하고 서로 바로잡으면서 살아간다. …… 그것은 사귀기를 잘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인간은 어떤 대화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자아라는 관계적 자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계적 자아는 사회적 전통적 관계망의 토대로서 유교 가족 윤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부자자효(父慈子孝)', '형우제공(兄友弟恭)'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내리사랑 방식으로서 '자애'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대 방식인 '효', 가부장적 서열체계에서 형의 '우애'와 동생의 '공경'은 수직적인 상하 질서 혹은 규범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수평적 맞물림 혹은 맞대응의 행위로서 대대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자식과 동생이 하위주체에 머물지 않고 상호주체로서 관계를 설정할 때 자애와 효, 우애와 공경이 실천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서로 공감하여 마침내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감이수통(感而遂通)'의 공동체적 실천윤리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감정적 연대로서 공감과 끊임없이 상호 이해의 지평을 열어가는 소통을 순차적(順次的) 차원에서 포함한다. 이는 인간 사이의 다원적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감성적 교류[感]와 합리적 소통[通]의 방향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① 감성적 교류를 통한 합리적 소통의 확산인가, ② 상호성의 맥락에서 합리적 소통을 매개한 감성적 교류의 보편화인가, ③ 감성적 교류와 합리적 소통의 공시화(共時化)를 통한 감통의 현재화인가? 유교적 감통의 실천윤리는 감성적 서로 스며들음을 통한 합리적 소통에로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의 성선설을 입증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하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의 해석은 감성적 교류와 합리적 소통이 맥락을 이뤄 도덕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장식의 부연해설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의 선험적·내재적 성격과 감성적 교류를 통한 도덕 행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언뜻 어린아이를 본다[乍見孺子]'는 데서 알 수 있다. 반드시 '언뜻 본다[乍見]'고 한 것은 바야흐로 이때 조치하거나 행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단서가 발현했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섬뜩하여 움직이며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는 교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며, 나쁜 평판을 싫

어해서도 아닌데 깜짝 놀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하는 실상이다.

이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사태에 직면하여 의도적 행위 없이 ‘언뜻 본다는’ 감성적 지각만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단서가 발현한다. 마음의 차마 하지 못하는 실상은 선형적인 도덕지각능력이다. 감성적 교류 또는 감각적 직관이 보편적 소통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사유는 제나라 선왕이 ‘혼종(饗鐘)’에 희생(犧牲)으로 쓰기 위해 끌러가는 소를 보고 양으로 바꾸라고 말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사람들은 선왕宣王이 재물을 아끼기 위해 비싼 소를 양으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는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다는 직관적 사실이다. 본다는 감각적 지각행위가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향해 끌러가는 소를 차마 볼 수 없는 내면의 윤리적 인식능력과 결합하여 소를 양으로 바꾸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내면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접속되어 발현되는 행위는 대상의 차별로 귀결될 수 없는 것이다.

#### 4. 빗장 공동체에서 트임 공동체로

##### 4.1. 빗장공동체의 불평등 구조

한나 아렌트는 공동세계에 대한 관심의 결여, 공동세계와의 결속감과 연대의식의 상실이 공동체의 해체, 사이 관계의 갈등과 균열을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할된 현대 사회의 도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는 중세의 도시를 에워싼 벽이 그 도시를 고립된 섬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하면서, 해 질 무렵 문이 닫히고 세상의 안식처를 봉쇄할 때 일체감, 안전감을 만들어내는 벽의 심리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뎀포드의 말을 인용하여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라 이름 붙인 현대 도시의 모습을 ‘고립된 섬들의 군집群集’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빗장공동체의 유행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주요요인으로 꼽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는 도시의 생태계의 빗장공동체 확산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질게 드리워진 도시의 그림자, 슬럼을 떠올리게 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도시가 방치되는 속도는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공공투자가 철수되는 속도만큼이나 엄청나 멀미를 일으킬 지경”이라고 강조한다.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패턴은 빈민을 도심에서 몰아내는 것이지만, 미국식 차별 분리 방식의 재생산을 통해 빗장공동체가 도시를 단절과 단합의 생태계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빛장공동체는 이제 도시 생태계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철저히 거주자와 토지개발업자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빛장공동체는 공간적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중산층과 자본가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빛장공동체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안전을 희구하는 부르주아와 도시의 총체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슬럼의 경계를 거대한 장벽으로 가른다.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인간 삶의 틈새를 끊임없이 갈라 화해와 소통, 연대와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봉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도시에 공존과 공감, 조화와 공생의 생태계가 새롭게 터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도시 계획가들이 이미 자본과 공모하는 삶에 익숙하고 도시 생태계가 완벽하게 여타 공동체와 절연된 ‘초 빛장 공동체(ultra-gated community)’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전통적 삶과 사유방식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의 복원을 기대하면서.

## 4.2. 공공과 화해의 트임 공동체

전통철학의 원형적 사유체계에서 공공성과 화해의 의미를 모색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이어받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트임 공동체로 나아가는 경로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여씨춘추』의 “전체가 함께해야[公] 천하가 화평[平]해지고, 화평은 전체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주장에서 공공성(公共性)·공통성(共通性)·평분성(平分性)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공평(公平)’한 사회를 향한 기대와 희망은 공공·공통·평분의 실천에서 결실을 얻는다. “공평하고 올바르게, 또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연대와 소통의 길이 닫힌 공동체에서 트임[開闢] 공동체로 전환하는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이다.

포괄적 의미에서 유학의 인(仁)은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 만인을 향한 보편적 사랑[愛人]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총체적 보살핌[愛物], 생태적 사고로 확장된다. 결국 자연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편애하지 않듯이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 만물에 대한 치우침 없는 아낌으로 이어져야 지극한 공공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한 공공성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은 격자화된 도시의 닫힌 구조와 위계적 질서로 틀지어진 빛장공동체에서 차이의 온전한 서로 받아들임과 열림으로 특징지어진 트임의 공동체로 진전된다.

그렇다면 빛장공동체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유학자들이 기획한 공공성과 화해의 공동체. 트임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유교에서는 공공의 의리가 실현된 이상세계, 대동(大同) 사회를 공동체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대동사회의 초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몸과 같다.’는 명제로 모인다. 대동 사회는 구성원 간의 경쟁과 갈등, 폭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존중과 서로 아낌의 평화로운 세계,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며, 동일성의 논리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직조하는 사회를 넘어서 나눔

과 평등에 근거해서 타자와 타자의 조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트임 공동체다. 반면 이기적 자아와 국가·공동체의 개인과 가족에로의 환원으로 특징지어지는 소강(小康) 사회는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과 갈등, 투쟁으로 비틀린 삶의 세계를 나타낸다. “공동체의 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모시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노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도모하는 사회”, 나아가 “예의로 맺어진 군신 관계·자애와 효로 이어진 부자 관계·부부 간의 화합·형제 사이의 화목·지혜롭고 용맹스런 삶에 대한 공경마저도 자신을 위한 삶으로 소환하는 사회”, 소강 사회는 모든 사회적 행위가 사적 이익과 가족주의로 환원되는 이익지향의 닫힌 사회, 빗장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러나 신의와 화목이라는 공동체의 관계 윤리와 현명한 자 발탁과 능력에 따른 직위 부여를 토대로 공공의 의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대동 사회를 ‘빗장 공동체’에서 ‘초 빗장 공동체’로 더욱 폐쇄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대안공동체, 트임 공동체의 원형으로 내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사로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을 상정하면서 조화와 겸양의 미덕으로 체화된 이타적 본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혜(智)와 자애(仁), 용기(勇)를 두루 갖춘 사람들의 사회가 아니라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규범이나 제도도 필요하다. “조화가 중요한 줄만 알고서 조화로움만 추구하고,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적절하게 행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되 한 편으로 치우쳐 흐르지 않는’ 중정(中正)·중화(中和)의 삶이다.

보편적인 도덕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유교의 이상세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고아·중병에 걸린 자를 서로 돕고 남은 재물이거나 노동력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상호부조의 사회다. “많은 데서 취하여 적은 데에 더해 주어 사물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축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 호혜의 공동체가 곧 공공성이 실현된 대동 세계다. 여기서 공적 자아로서의 삶은 정치적·경제적 강자가 약자로서 인간존재의 개별적 필요에 맞추어 무제한적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비대칭적 의무를 도덕의 중심원칙으로 본다. 아렌트가 말했듯이 “사적이고 친밀한 삶을 비추는 미광도 결국 그 광력을 공론 영역의 보다 강도 높은 빛으로부터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큰 도리가 행해지고 공공의 의리가 실현되며,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의 의무를 사회 전체에 책임지우는” 보편적 도덕과 복지의 이상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계층 간의 불화와 알력, 갈등이 증폭되면서 빗장공동체로 엮어 나가는 현대사회에 자기 성찰의 근거를 제시한다.

결국 공공과 화해의 공동체, 트임 공동체에서 개개인은 주체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차별 없는 차이를 강조하고 동일성의 논리로 타자를 소유하거나 배제하는 전체주의를 경계한다.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주체로서의 자각 없이 전체의 의지에 매몰되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윤리, 공동체의 성원과 두루 어울리지만 한편으로 치우쳐 당파를 구성하지 않는 ‘주이불비(周而不比)’의 공동체 정신, 자존적 삶을 추구하지만 결코 무한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집단을 이루면서도 결코 빗장공동체로 편입되지 않는 ‘군이부당 (群而不黨)’의 트임 공동체는 화해와 두루 어울림, 자기존중의 조화의 삶으로 귀결된다.

#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와 보헤미안 랩소디<sup>1)</sup>

최대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Mama life had just begun /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 보헤미안 랩소디

머큐리가 작사 작곡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밴드 ‘퀸’을 일약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보헤미안 랩소디에 등장하는, “엄마, 한 남자를 죽였어(Mama, just killed a man)”로 시작되는 가사 부분은 팬과 평론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총을 맞아 죽은 남자는 일반적으로 이성애자로서 머큐리 본인으로 해석되었다. 이유는 보헤미안 랩소디 발표 얼마 후 머큐리는 메리 오스틴(Mary Austin)에게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했고, 그것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는 점이 거론된다. 머큐리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할 무렵 동성애 성향에 눈을 떴고, 1975년 이 곡의 발표는 사실상의 커밍아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골자이다.

본 연구는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단편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팬들이 특히 “한 남자를 죽였어”라는 구절에 공감을 표명했다면, 그것은 과연 단순히 그의 동성애자로서의 커밍아웃 때문이었을까? 오히려 이제 런던에 갓 도착한 젊은 이민자가 “난관에 막혀(Caught in a landslide)” 좌절하고 슬퍼하는 삶의 애환과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인, “엄마, 이제 막 삶이 시작되었어, 과거의 나를 다 내다 버렸어”와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가사부분은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자기부정으로만 해석되기보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민자 머큐리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해석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머큐리의 출신배경은 파르시라는 종족 집단이다. 파르시는 ‘인도의 유대인’으로 불릴 만큼, 종족의 이산이 특징적이다. 머큐리의 가족 역시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다시 영국으로 이주를 감행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보헤미안이다. 머큐리가 작사 작곡한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그런 영원한 이주민으로서 파르시와 파르시의 일원으로서 그의 가족과 그의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함께 녹아 있는 것은 아닐까?

1) 이 논문은 필자의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와 보헤미안 랩소디의 재해석”이라는 미발표 원고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름이란 뭐가요? 우리가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그 향기는 그대로인 것을”  
-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제2막2장.**

머큐리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던 프리스톤은 그가 마치 17살의 나이로 펠트햄에서 태어난 것처럼 살았다고 증언한다. 펠트햄은 머큐리가 불사라가족과 함께 잔지바르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해 온 뒤, 처음으로 정착한 런던 서부의 한 지역명이다. 펠트햄은 머큐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던가? 머큐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패션과 음악 트렌드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그가 이제 대중스타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종목적지인 제국의 본산 런던에 입성하였다. 젊은 이민자 머큐리는 영국 사회에 섞여 들어갈 수 있길 갈망했다. 그러나 인종적 긴장은 높았다. 젊은 이민자 불사라는 자신의 과거와 종족성을 감추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영국사회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기 위해, 잔지바르 친구와의 절연이라는 반대급부를 지불했다. 그의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 노력은 ‘퀸’의 결성과 더불어 이름의 변경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름은 ‘프레디 머큐리’로 바뀌었다. 프리스톤에 따르면, 머큐리의 유년시절은 친구들이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영토”였다. 그의 유년시절, 즉 식민지적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종족적 이질성,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다름과 차이의 부각은 당시 1970년대 영국사회에서 록스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머큐리에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신의 과거를 자동으로 소환하는 친구들과 단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사라에서 머큐리로 성씨를 변경한 것은 바로 그 “금지된 영토”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머큐리와 친구 관계였던 엘튼 존은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한 인터뷰에서 그가 만약 ‘유럽인’이었다면 그의 위상은 비할 바 없이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적 있다. 머큐리는 엘튼 존이 아쉬움을 표현한, 바로 그 ‘유럽인이 아님’을 감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홍보담당자에게 과거를 숨기고 본명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친구 브라이언 메이도 같은 인터뷰에서 머큐리의 개명과 연관하여 “다른 피부색”을 거론한다.

“나는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은 자신에게 다른 피부색을 입히는 것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 개명을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사라라는 인간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에게 다른 캐릭터가, 신이 되려고 했다.”

메이가 말하는 “다른 피부색을 입히는 것”은 유색인종 이민자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주류사회 소속의 ‘백인’이 되는 것, 즉 ‘영국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머큐리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영국인이 되고자 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런던이란 새로운 정착지에서 ‘영국인’이 되고 싶다고 하여,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불사라가 단번에 불사라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탈식민시대의 ‘혼성적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지점을 가리킨다. 그의 개명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이 대사는 이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머큐리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국이라는 주류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이민자에 대한, 특히 구식민지 출신 유색인종 이민자에 대한 낙인찍기 또는 파르시라는 종족 그리고 그와 연관된 조르아스터교라는 낯선 종교에 대한 인식의 폭력을 피해가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당시 1960년대 영국사회는 2차세계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밀려드는 이민자 물결로 인해 이민자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거세질 대로 거세져 있었다. 그러한 주류사회의 분위기에서 머큐리는 ‘불사라(Bulsara)’라는 낯선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구속하는 굴레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미 어린 시절 인도의 기숙학교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의 대상이 된 경험을 한 터였다. 이미 그때 그는 ‘파로크(Farrokh)’에서 주류사회 구성원이 발음하기 쉬운 ‘프레디(Freddie)’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탄생과 더불어 붙여지는 이름은, 자의적일지 모르지만, 일단 특정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은 이름이 종족을, 민족적 소속성을 그리고 성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이민자에게 문제적이 된다. 발음하기 힘든 낯선 이름은 이민자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머큐리는 이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음악가로서 유명해지고 대중스타로서 ‘전설’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이민자이거나 적어도 이민자의 후손을 의미했을 그 ‘불사라’라는 이름은 일종의 기호로서 아마도 그가 후진적이며, 전근대적이며 또는 사회부적응자이거나 사회보장체계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해석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의 굴레로부터 ‘탈출하고자’ 했고, 그것의 귀착점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사라에서 머큐리로의 성씨의 변경이었다.

**“프레디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노래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재창조되는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고민에 빠졌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래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을 겁니다.”**

- 밴드 ‘퀸’의 브라이언 메이

머큐리의 친구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2011)에 따르면, 보헤미안 랍소디는 1975년에 완성되었지만, 그가 그 곡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었다. 이 노래의 가사는 “The Cowboy Song”이라고 알려진 머큐리의 오래된 짧은 곡에서 비롯되었다. 이 곡에 이미 “한 남자를 죽였어”라는 보헤미안 랍소디의 유명한 가사가 들어 있었다. ‘퀸’ 멤버들이 이 곡을 작업할 때, 작업가제는 ‘Fred’s Thing’이었다. 즉 보헤미안 랍소디는 처음부터 ‘프레디의 사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큐리는 동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파르시 공동체에 소속된 인도 출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8살에 인도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잔지바르로 되돌아온 그는 1964년 17세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미술 대학을 졸업한 뒤, 23세의 나이로 집에서 분가하여 독자적으로 음악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당시 그는 동성애자이기 전에, 대영제국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의 작은 섬 잔지바르 출신 유색인종으로 제국의 심장에서 록스타를 꿈꾸는 젊은 이민자였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히드로 공항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이민자였다. 그는 집에서 분가한 뒤 런던의 켄싱턴 시장에서 가판을 열고 잡동사니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의 이민자였다. 대중적 스타를 꿈꾸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 즈음 보헤미안 랩소디는 착상되었다.

처음부터 '프레디의 사안'으로 쓰여 지기 시작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 중에는 1970년에 발매된 첫 앨범에 실린 'My Fairy King'이라는 곡의 가사와 매우 흡사한 구절이 있다. "나의 요정왕"이라 번역되는 이 노래의 가사의 주인공은 어머니 머큐리에게 "나는 달아날 곳이, 숨을 곳이 없다(I cannot run / I cannot hide)"고 하소연 한다.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없어(No Escape from Reality)"라고 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호소와 한탄은 영국으로 갓 이주한 식민지 출신 젊은 이민자 머큐리가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느끼고 있던 좌절과 억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닐까? 이민자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날로 확산되던 1960-70년대 영국사회에서, 낮은 이력과 낮은 피부, 낮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이 초기 그의 곡들에서 자전적인 가사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브라이언 메이의 발언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메이는 우선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동성애적인 관점의 해석에 동조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의미에 대해서는 밴드 친구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만약 안다고 해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 다음 그는 덧붙이길, 그 곡은 프레디가 힘들어 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메이는 머큐리의 개명을 그가 자신에게 "다른 피부색"을 입히는 작업이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는 머큐리의 개명을 머큐리의 피부색, 즉 그의 종족성과 그의 출신배경과 연결 지었다. 이러한 해석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의미에 대한 그의 해석과 연결된다. 메이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의미는, 동성애를 제외한 프레디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 개인적인 문제들은 식민지 출신 유색인종 이민자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프레디의 사안'이지 않았을까? 다른 밴드 친구들도 보헤미안 랩소디가 머큐리의 "집안의 친척"과 관련된 곡이거나 자전적인 성향의 곡이라고 어렵듯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그의 과거와 관련된 주제들은 서로가 쉬쉬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보헤미안 랩소디"이지만, 가사 어느 곳도 보헤미안과 관련된 것이 없다. '보헤미아'는 체코의 지역명으로 집시들의 본산지로 알려져 있다. 집시는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집단으로서 자유를 찾아 유랑하는 종족 집단이다. 그렇다면 보헤미안 랩소디는 무슨 뜻일까? 랩소디(Rhapsodie)는 서사적, 민족적 색채를 지닌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을 뜻한다. 그렇다면 보헤미안 랩소디는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판타지를 노래한 음악일 것이다. 이 자유로운 보헤미안은 누구일까? 그는 파르시의 후예로서 머큐리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총을 맞아 사망한 남자는 소수 종파 파르시의 후예로서, 이제 제국의 본산 런던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젊은 이민자 머큐리일 수 있지 않을까? 전술했듯이 머큐리는 1960년대 말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나서면서,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자 노력했다. 음악가로서의 길을 떠나기 위해 불사라가족의 펠트햄 집을 떠났고, '퀸'의 결성과 더불어 불사라에서 머큐리로 개명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정박지에서, 비록 가련한 젊은이지만, 동정 따윈 필요로 하지 않는(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이민자 머큐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지 않는가? 현실로부터 탈출구를 찾지 못한(No escape from reality) 파르시의 후예 머큐리는 은유적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Put a gun against his head), 방아쇠를 당겨 죽였다(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막 삶이 시작되었다며(Mama life had just begun), 과거의 자신을 다 내다 버렸어(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라고 선언한다. 잔지바르, 파르시와 연관된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다른 피부색"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렇지만 엄마를 울리려던 것이 아니었다며(Didn't mean to make you cry), 내일 자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지내라며(Carry on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안녕을 기원한다.

**“우리는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어디엔가 속하지 못하고 마음 쉴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의 사안'으로부터 출발한 곡이지만, 이 곡이 당연히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에게만 의미를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당대에 이 곡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이 곡이 현실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지만,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난관에 처한 유색인종 이민자 '프레디의 사안'이 큰 울림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머큐리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밴드 '퀸'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보헤미안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만, 그러한 현실로부터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그리하여 마음 쉴 곳조차 없는 이민자, 유색인종, 동성애자, 장애자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부적응자'를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머큐리 자신이 소수자 중의 소수자였다.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출신의 이민자였다. 당시 게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영국사회에서 아프리카 출신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그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밴드 '퀸'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난관에 부딪힌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은, 전 세계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밴드에 열광하게 한 이유가 아닐까?

## 참고문헌

- 정유석(2018). *퀸: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북피엔스.*
- Blake, M. (2011). *Is This The Real Life? The Untold Story of Queen.* Aurum Press.
- Brooks, G., Lupton, S. (2008). *Freddie Mercury: A Life, In His Own Words.* 문신원 (역) (2009). *퀸의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 낯선 세상에 서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노래하다.* 서울: 뮤진트리.
- Bryceson, D., Vuorela, U. (2002). *Transnational Famil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D. Bryceson, U. Vuorela (Ed.).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pp. 3-30). New York: Routledge.
- Freestone, P., Evans, D. (2001). *Freddie Mercury: 'An intimate memoir by the man who knew him best'.* London, UK: Omnibus Press.
- Jones, Lesley-Ann (2011). *Freddie Mercury: The Definitive Biography.* 변문경 외(역) (2018). *Queen 예술적 상상력의 르네상스.* 서울: 다비치books.
- Stockdale, Nancy L. (2016). *No Escape from Reality: The Postcolonial Glam of Freddie Mercury.* In I. Chapman and H. Johnson (Ed.). *Global glam and popular music : style and spectacle from the 1970s to the 2000s* (pp. 83-97). New York: Routledge.
- *Freddie Mercury - The Untold Story* (2000) part 6, [https://www.youtube.com/watch?v=L36N4BKKir4&ab\\_channel=afr00dita](https://www.youtube.com/watch?v=L36N4BKKir4&ab_channel=afr00dita)(접속일2020-12-16)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연구동향

1.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2. 가족의 미래를 묻기 전 검토해야 할 것들 I :

**<가족실천 및 가족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 자료와 시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 이슈, 세계가족정책 사례 및 통계들을 재구성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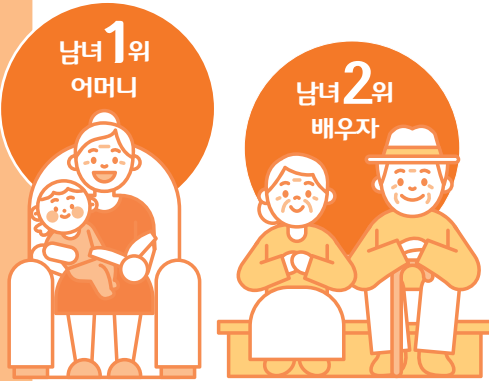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 가족의 미래를 묻기 전 검토해야할 것들 I

## 1.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서적 친밀함 - 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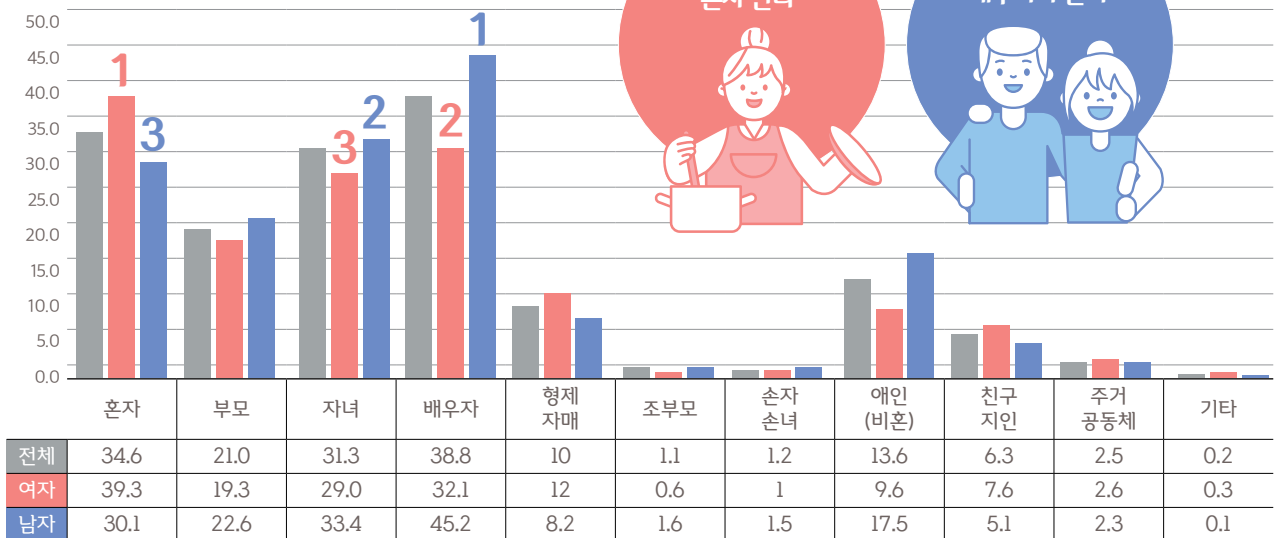
순위	전체 (N=3,000)		여성 (N=1,462)		남성 (N=1,538)	
	관계	친밀도 점수 <sup>1)</sup>	관계	친밀도 점수	관계	친밀도 점수
1	어머니	57.4	어머니	56.4	어머니	58.4
2	배우자	48.8	배우자	46.2	배우자	51.2
3	형제자매	33.9	형제자매	38.2	아버지	32
4	자녀	28.9	자녀	33.1	형제자매	29.7
5	아버지	26.6	친구, 선후배, 이웃	27.9	자녀	24.8
6	친구, 선후배, 이웃	25.2	아버지	21	친구, 선후배, 이웃	22.6
7	애인	8.4	애인	7.8	애인	9
8	직장동료	5.7	직장동료	4.8	직장동료	6.6
9	그외친척	4.3	그외친척	4.1	그외친척	4.4
10	온라인친구	3.5	온라인친구	3.4	온라인친구	3.7

1) 이 문항은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4, 2순위\*3, 3순위(1, 4순위\*1)하고, 1순위 만점이 100점(2순위 75점, 3순위 50점, 4순위 25점)이 되도록 조정된 점수를 계산하였다. 예컨대 응답자 모두 어머니를 1순위로 선택하면 어머니의 친밀도 점수는 100점이 된다.

## 2.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가족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함께 살고 싶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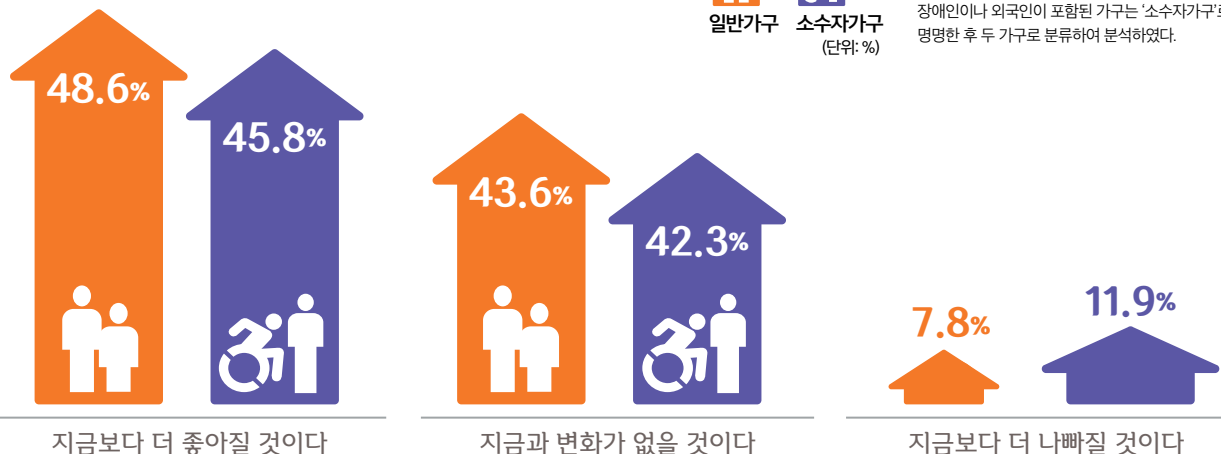
(단위: 명, %)



## 3. 차별 변화에 대한 전망



\* 주: 1인 가구, 한부모, 재혼, 입양, 동거, 공동체 생활 등의 가족 형태를 경험한 경우는 '일반가구'로 명명하였고,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는 '소수자가구'로 명명한 후 두 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가족의 미래를 묻기 전 검토해야 할 것들 I<sup>1)</sup> : <가족실천 및 가족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추주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이번 호의 통계 동향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과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올해 공동으로 기획한 『가족실천 및 가족차별 상황 실태조사』의 결과의 일부를 나눠서 소개한다. 조사는 가구·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차별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 가족변동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0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25~55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커뮤니티인문지표는 가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다른 은유로서 접근하며, 나아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변화를 추적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기존의 인문학적 개념 요소에 사회과학의 양적지표를 차용하여 우리사회 가족상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시도하였다. 열린 가족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시공간, 관계, 주체로 구분되며, 관계는 인접성, 타자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탐색된다. 기존의 가족이 혈연적 관계에 정박해 그 관계와 인식이 고정되었다면, 가족커뮤니티인문지표 속에서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서 가족 내외부의 관계성의 강도, 거리, 밀도 등을 접근하는 또 다른 인식적 접근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리로 자리매김한다. 인접성이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감정적이면서 감각적인 측면을 가능케 하는 관계의 성립의 잣대라면, 타자성은 궁극적인 배제와 소외, 국가와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의문과 그 도덕적 기반을 탐색하게 도와주는 개념이다. 지속성은 시간이라는 지점에서 단절과 연속, 닫힘과 열림, 의례와 재현 등을 검토함으로써 가족의 의미변화의 시간성과 리듬을 가능하게 한다.

실태조사는 각각의 개념적 기반과 연계하여, 한국 사회의 가족을 들여다 보기 위한 실증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가족실천과 인식의 변화 지점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매우 제한적이지만 인접성은 가족의 범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타자성과 연관하여서는 배우자, 가족(자녀와 부모), 소수자 가구(장애인, 외국인 포함가구)의 차별과 소외,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의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가족실천의 변화와 차이의 지점을 검토하였다. 이번 포커스 5호에서는 가족커뮤니티인문지표의 인접성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소개한다.

1) 이 글은 제2회 전남대인문학연구원 국가전략포럼(2020.12.08.)에서 “가족실천 및 가족차별 실태조사 결과(가족구성권연구소)”로 발표된 글과 향후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간할 전남대인문학연구원의 국가전략총서(2021.1 예정)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다.

## 1. 응답자의 기본특성

조사 참여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하였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의 비율<sup>2)</sup>과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된 가족 현실을 감안하였으며,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초기 청년(만 19~24세)과 노인 연령을 제외하고 선정 하였다.

전체 3,000명 가운데 여자 48.7%(1,462명), 남자 51.3%(1,538명)이었다. 고졸이하 학력자는 356명(11.9%), 초대졸 이상 학력자는 2,579명(88.2%)이었다. 경제활동 상태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78.5%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12.4%(371명), 학생, 무직 또는 은퇴 9.1%(273명)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로는 4인 가구 36.3%(1,088명)로 가장 많았고, 3인가구 29.5%(876명), 2인 가구 14.7%(440명), 1인가구가 11.3%(340명), 5인 가구 8.5%(255명)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중(중하) 51.7%(1,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최상, 상, 중상) 26.6%(798명), 하(하, 최하) 21.7%(6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결혼 및 파트너 관계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가구 형태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sup>3)</sup>, 응답자 중 법적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 가구(응답자 부모)가 50.4%(1,512명)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법적부부와 함께 사는 자녀가구(응답자 자녀) 26.7%(802명), 1인 가구 11.3%(340명), 2인으로 구성된 법적 부부가구 7.6%(22명), 2인으로 구성된 동거 중심 가구 3.0%(89명), 기타가구가 0.9%(28명-비혈연가구 7명, 미분류 21명)이었다.

〈표 1〉 응답자 기본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3,000	100
성별	여자	1,462	48.7
	남자	1,538	51.3
연령	만 25-29세	441	14.7
	만 30-39세	866	28.9
	만 40-49세	1,040	34.7
	만 50-55세	653	21.8
최종학교	고졸이하	356	11.9
	2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455	15.2
	4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1,818	60.6
	대학원재학/중퇴/졸업	372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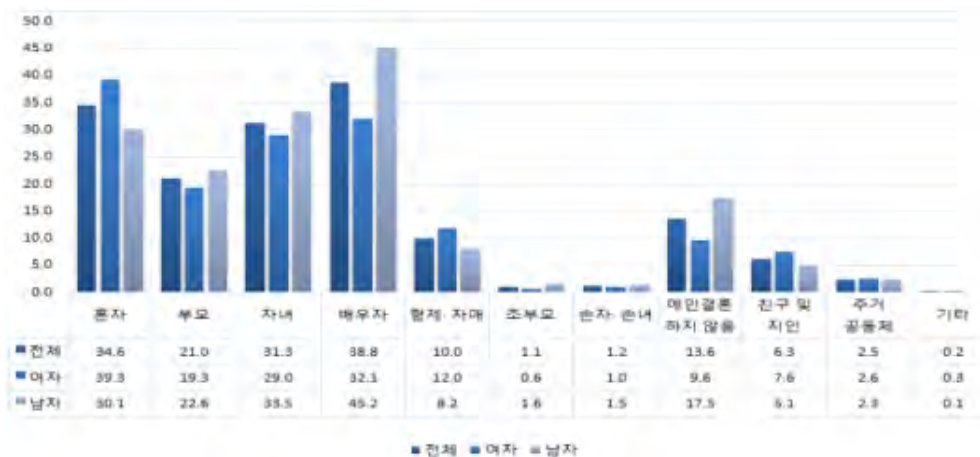
2)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ECD와 동일한 정의와 산출 방법을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15~29세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14년 기준 84.6%로 나타났다(김문길 외, 2017:166).

3) 가구형태는 ① 1인 가구: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동거인 없이 혼자 생활, ② 동거중심 가구: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이거나 애인·파트너와 비혼 동거하는 가구, ③ 법적부부 가구: 법적으로 혼인한 응답자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 ④ 부/모 가구(응답자 부모): 부/모인 응답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 ⑤ 자녀 가구(응답자 자녀): 자녀인 응답자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 ⑥ 기타(비혈연/미분류) - 혼인, 혈연, 친인척 관계가 아닌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분류하였다.

구분		응답자수	비중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종사	2,355	78.5
	전업주부	371	12.4
	학생, 무직/은퇴 등	273	9.1
가구원수 (본인포함)	1인	340	11.3
	2인	440	14.7
	3인	876	29.2
	4인	1,088	36.3
	5인 이상	255	8.5
사회경제적 지위	최상/상/중상	798	26.6
	중하	1,550	51.7
	하/최하	652	21.7
가구형태	1인 가구	340	11.3
	동거중심 가구	89	3
	법적부부 가구	228	7.6
	부/모 가구	1,512	50.4
	자녀 가구	802	26.7
	기타(비혈연/미분류)	2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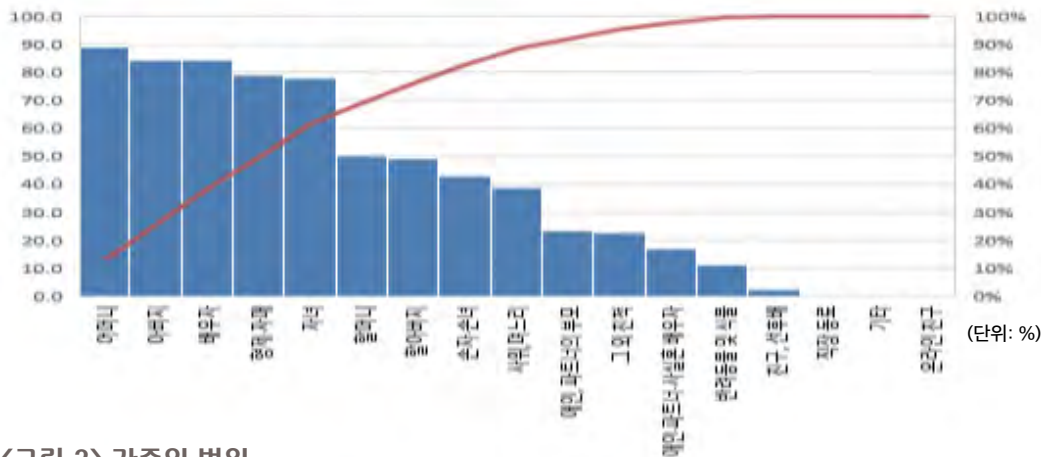
## 2.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가족 형태를 자유롭게단위: 명, %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우자(38.8%) > 혼자(34.6%) > 자녀(31.3%) > 부모(21.0%) > 애인(결혼하지 않음, 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 원하는 가족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은 배우자 45.2%, 자녀 33.5%, 혼자 30.1% 등의 순 이었고, 여성은 혼자 39.3%, 배우자 32.1%, 자녀 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독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남성은 배우자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단위: %)



<그림 2> 가족의 범위

다음으로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구성원 중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어머니(57.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48.8%), 형제자매(33.9%), 자녀(28.9%), 아버지(26.6%) 순이었으며,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친구/선후배/이웃(25.2)에 대한 친밀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친밀한 가족구성원 인식에 있어서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친밀감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후순위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어머니, 배우자 다음으로 아버지와 친밀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선후배·이웃 보다 더 낮은 비율로 아버지와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표 2> 정서적 친밀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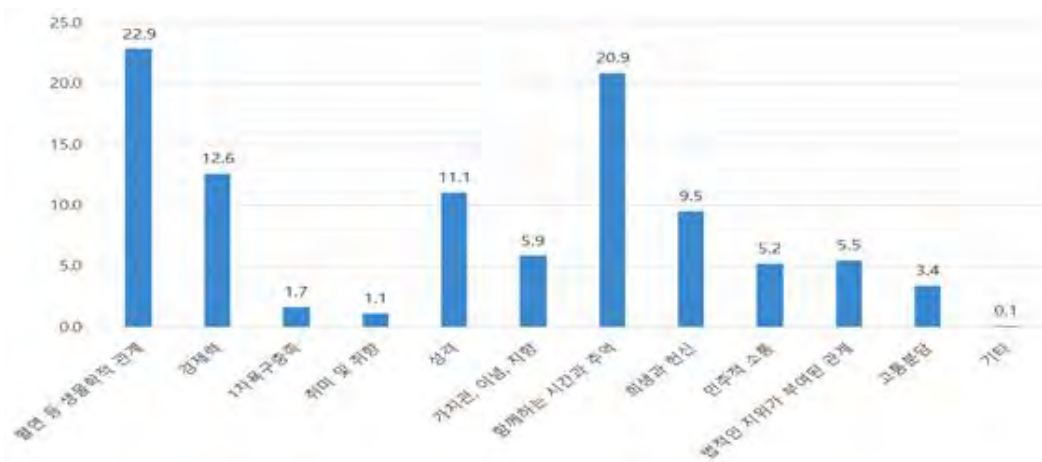
순위	전체 (N=3,000)		여성 (N=1,462)		남성 (N=1,538)	
	관계	친밀도 점수 <sup>1)</sup>	관계	친밀도 점수	관계	친밀도 점수
1	어머니	57.4	어머니	56.4	어머니	58.4
2	배우자	48.8	배우자	46.2	배우자	51.2
3	형제자매	33.9	형제자매	38.2	아버지	32
4	자녀	28.9	자녀	33.1	형제자매	29.7
5	아버지	26.6	친구, 선후배, 이웃	27.9	자녀	24.8
6	친구, 선후배, 이웃	25.2	아버지	21	친구, 선후배, 이웃	22.6
7	애인	8.4	애인	7.8	애인	9
8	직장동료	5.7	직장동료	4.8	직장동료	6.6
9	그외친척	4.3	그외친척	4.1	그외친척	4.4
10	온라인친구	3.5	온라인친구	3.4	온라인친구	3.7

1) 이 문항은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4, 2순위\*3, 3순위(1, 4순위\*1)하고, 1순위 만점이 100점 (2순위 75점, 3순위 50점, 4순위 25점)이 되도록 조정된 점수를 계산하였다. 예컨대 응답자 모두 어머니를 1순위로 선택하면 어머니의 친밀도 점수는 100점이 된다.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대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는 어머니(88.9%)>아버지(84.3%)>배우자(84.2%)>형제자매(78.9%)>자녀(77.9%)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는 혈연 가족과 법적 결혼에 의한 제도적 구성원을 가족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가족이 되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1순위 응답은 혈연 등 생물학적 관계(22.9%)>함께하는 시간과 추억(20.9%)>경제력(12.6%)순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한 1순위 응답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21.4%)>혈연(20.8%)>경제력(12.5%)>성격(11.8%)순인 반면 남성은 혈연(24.8%)>함께하는 시간(20.4%)>경제력(12.8%)>희생과 헌신(10.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혈연, 경제력, 희생 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다 가부장적 가족중심성과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 1순위

(단위: %)

가족을 묶는 중요한 요소에 혈연 등의 생물학적 관계를 간과할 수 없지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가족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혈연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 서로의 성격, 소통 등 다양한 측면들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림 4〉 가까운 가족관계 유지에 중요한 것(1순위): 성별

(단위: %)

#### 4. 결론을 대신하여

이번 5호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인접성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분명 한국사회에서는 혈연과 제도에 기반한 가족이 관계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남성들이 혈연과 경제력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의식과 의례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성들은 이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른 관계적 요소와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낸 가족 실천의 차이는 실태조사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아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미 가족 내부의 ‘변화’와 ‘차이’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며, 가족에 대한 민감성은 차별과 평등, 소통과 다름, 민주적 관계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그 결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가족실천은 기존의 가족 제도 및 관행, 문화의 맥락 속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 한계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족 내부의 정서적 친밀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리는 불안하고 흔들린다. 함께하는 시간, 삶의 지향(가치관)을 공유하는 또 다른 관계는 언제든지 ‘가족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 혼자, 남성은 배우자라고 인식하고 있어 우리사회 여성들의 비혼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이들이 가까운 가족관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의 결과를 보고자 한다. 여성의 1순위는 함께 하는 시간과 추억이고 남성의 1순위는 혈연 등 생물학적 관계로 나타나 가족구성원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밀함의 요소가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혈연중심의 가족되기에 대한 기존의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에 대한 가족되기 요소

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요소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 가족되기를 실천해나가는가가 가족되기의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는 여성들이 왜 비혼 또는 기존의 결혼제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혈연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는 가족을 포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의 스펙트럼은 여전히 좁고 짧다. 반면에 가족이라는 명명을 넘어서서 혹은 가볍게 버리고 각자가, 개인이 맺는 관계의 밀도들을 설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관계의 또 다른 결절을 말하는 것이며, 그 결절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무조건적 부정과 긍정의 의미, 행복과 불행,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이분법 속에서 규정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번 실태조사는 특정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 가족 실천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혹은 어디에나 있는 가족하기의 실천이 빚어낼 미래 가족커뮤니티의 방향과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